

카자흐스탄 자동차 산업 동향과 시사점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2023년 자동차 산업 성과를 발표하고 산업 생산이 전년대비 42%, 판매가 61%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함.¹⁾
- 2023년 승용차 생산량은 13만 4,000대로 전년대비 30% 증가했으며, 신차(승용차 및 상용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9만 8,842대를 기록함.²⁾
 - 2023년 12월 차량 신규 등록 대수가 2만 3,524대로 14개월 연속 증가함.
 - 현대, 기아, 쉼보레가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2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 중임.
 - 쉼보레가 2022년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나 2023년에는 현대차가 최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2022년부터 현지 판매를 시작한 Chery와 Changan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음.

그림 1. 카자흐스탄
승용차 생산 및 신차 판매 추이
(단위: 천 대)



자료: 승용차 생산량은 카자흐스탄 통계청(QAZSTAT), 자동차 판매량은 카자흐스탄 자동차 사업 협회(AKAB).

표 1.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 점유율(2023년)

	브랜드	판매량	점유율
1	Hyundai	47,181	23.7
2	Chevrolet	45,807	23.0
3	Kia	25,495	12.8
4	Chery	12,259	6.2
5	Toyota	10,813	5.4
6	JAC	8,750	4.4
7	Haval	7,809	3.9
8	Changan	6,087	3.1
9	Jetour	3,930	2.0
10	Exeed	3,884	2.0
	총 판매량	198,842	100.0

자료: focus2move(2024. 2. 11). “Kazakhstan 2023. Vehicle Market Hit New Record Sales Booming +6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많은 기업이 시장 환경이 악화된 러시아에서 주변 CIS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카자흐스탄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동차 제조설비가 확충되고 있는 것이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됨.
- Great Wall Motors(중국), 기아자동차가 조립공장을 신설 중이며, 러시아에서 생산해온 러시아 및 체코 브랜드 차량을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 중임.
 - 중국 자동차 브랜드 Chery, Changan, Haval은 2022년 11월부터 연간 생산량 9만대 규모의

1) The Astana Times(2024. 2. 28). “Automotive Industry in Kazakhstan Outpaces Expectations.”

2) focus2move(2024. 2. 11). “Kazakhstan 2023. Vehicle Market Hit New Record Sales Booming +61%.”

조립공장을 알마티에 건설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완공 예정임.

- 기아자동차는 제1조립공장에서 2023년 1월부터 스포티지와 봉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추가로 7만대 규모의 제2조립공장을 건설 중으로 2025년 2분기부터 본격 가동 예정임.
- 체코 자동차 브랜드 Skoda는 2024년부터 Octavia, Kodiaq, Kamiq, Karoq 모델을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으며, 쉐보레는 2024년 3월부터 Onix 모델의 현지제조를 시작함.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LADA 차량의 조립공장을 카자흐스탄에 신설할 의사를 밝힘.³⁾

□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강조하고, 역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중임.

- 자동차 조립 산업은 ‘특별 투자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수입관세와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며, 환경기준 및 국산화 요구사항 충족 시 인센티브가 지급됨.⁴⁾
- 카자흐 정부는 2020년 ‘자동차 조립 산업에 관한 협약’을 도입하고 조립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조립공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부품 제조 기업에 세금·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국산 부품 이용을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부품 생산을 늘리고 현재 30~40%로 평가되는 현지화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⁵⁾
- 기존의 SKD(Semi Knock Down) 중심의 조립 방식에서 CKD(Complete Knock Down) 방식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각 자동차 브랜드는 최소 1개 이상의 모델을 CKD 방식으로 생산하고, 2024년 20% 수준인 CKD 방식 생산 비율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해야 함.⁶⁾

□ 카자흐스탄 자동차 산업이 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며, 우리 기업은 자동차 생산 현지화·고도화를 위한 카자흐 정부 방침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시장과 격차가 존재하지만 카자흐 정부가 2026년까지 차량 생산을 50만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의 2023년 신차 판매는 38만대, 승용차 생산은 39만대로 전년대비 각각 33%, 25.9% 증가함.⁷⁾
- 국산 부품 이용 및 조립공정 고도화를 위한 카자흐 정부 방침에 대응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수요에도 관심이 요구됨.

정동연

3) Tass(2023. 11. 9). “Russia ready to create new plants in Kazakhstan for Lada cars assembly — Putin.”

4) Special investment project, “Special investment project,” Official Information Source of the Prime Minister (2020, 2, 19). “Automotive industry of Kazakhstan: How is it developing and what are the prospects.”

5) Autoreport(2023. 4. 12). “Уровень локализации автомобилей казахстанской сборки достигает 50%.”

6) SKD는 반제품(일부 조립)으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CKD는 완전분해제품(부품 그대로)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임. CKD가 생산지의 자본과 기술력을 요하는 동시에,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The Times of Central Asia(2024. 2. 21). “Kazakhstan to Increase Production of Auto Components.”

7) DARYO(2024. 1. 17). “Uzbekistan records staggering 18% surge in car sales in 2023, over 1.7mn vehicles sold;” (2023. 11. 1). “Uzbekistan and Kazakhstan fuel Central Asian automotive industry growth.”